

광주FC '루키' 안혁주, 금호고 명맥 잇는다

금호고 '선배' 엄지성 보여 꿈 키워... "개막전 동료들과 승리 협력 감격" 데뷔 6분만에 첫 유효슈팅 기록... "볼 결정력 등 보완 더 좋은 선수 될 것"

축구 명문 금호고의 전통을 이을 '루키'가 등장했다. 광주FC의 안혁주가 거침없는 데뷔전을 치르며 '금호고즈'의 힘을 보여줬다.

안혁주는 지난해 금호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대학 무대를 경험했다. 그리고 올 시즌 이정호 감독의 콜업을 받으면서 프로 데뷔를 준비했다.

그의 데뷔전은 개막과 함께 치러졌다. 안혁주는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K리그1 2024 개막전에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가슴 떨리는 데뷔전을 치렀다.

"엄청 긴장 됐다. 처음에 기성용 선수를 봤을 때 실감이 안 났다"며 경기를 뛰기 전 가슴 떨리던 순간을 이야기한 안혁주. 하지만 그라운드에서 오른 순간 그는 "프로 선수"가 됐다.

가브리엘과 측면 공격을 맡은 그는 초반 활발한 움직임으로 광주 공격 흐름을 이끌었다. 데뷔 6분만에 눈길 끄는 첫 유효슈팅도 만들었다.

가브리엘이 오른쪽에서 넘긴 공을 받은 그는 프로 첫 슈팅을 시도했다. 서울 골키퍼 최철원에게 막히면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첫 슈팅은 유효 슈팅으로 기록됐다.

안혁주는 전반 20분 '금호고 선배' 이희군이 선제골을 넣는 순간 함께 표호한 뒤 전반 22분 또 다른 '금호고 선배' 엄지성에게 자리를 내주고 첫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이정호 감독과 미리 약속했던 '25분'. 경기 흐름 상 조금 일찍 그라운드에서 물러났지만 충분히 안혁주의 매력과 잠재력을 보여준 시간이 됐다.

안혁주는 "경기 하기 전에는 긴장이 됐는데, 경기장 들어가서는 별 생각이 없었다. 경기 뛰어나니까 해볼 만한 것 같았다. 형들이 위촉되지 말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경기를 잘할 수 있었다"며 "(슈팅이) 잘 안 맞아야 골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너무 잘 맞았다.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독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25분 정도 뒀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올 때 엄청 아쉽기는 했다. 나와서도 떨렸고, 밖에서 보면서도 좋았다. 못 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 준비 잘해서 다음 경기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며 "경기 영상 보면서 잘못된 점이나 그런 것,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잘 캐치해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가 존경해 왔던 '선배' 엄지성과 동료로 승리를 협력했다는 점에서 더 감격스러운 데뷔전이었던 것이다.

안혁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고등학교 때부터 존경해 오던 형이다"며 엄지성을 이야기했다.

안혁주가 금호고 1학년 때 엄지성은 3학년 선배였다. 두 선수 모두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 중 하나다. 안혁주는 고등학교 때 엄지성을 따라 야간 훈련을 하면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웠다. 당연히 엄지성의 영상도 많이 찾아봤던 만큼 롤모델과 함께하는 지금이 꿈만 같다.

프로에서 4번째 시즌을 맞은 엄지성은 자신을 닮은 후배의 거침 없는 질주를 응원했다.



광주FC의 엄지성(왼쪽)과 안혁주가 지난 2일 FC서울과의 개막전이 끝난 뒤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엄지성은 "떨렸을 텐데 데뷔전 잘해줬다.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다. 내가 걸었던 길을 걷게 되는데 앞으로 좋은 날만 있기를 빌겠다"며 "스피드도 있고 슈팅도 좋고, 기술적인 부분도 뛰어나다. 이제 감독님이 원하는 부분만 잘 캐치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을 지켜보는 후배가 있는 만큼 더 좋은 모습으로 '선배'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엄지성은 "감독님이 원하시는 부분 나도 잘 못하고 있다. 경험해야 한다. 부딪히고, 혼나고, 실수하고, 도전해야 한다. 나도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만, 프로 생활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며 "내가

더 잘해야 한다. 첫 경기 하고 감독님한테 혼났다. 기대치에 맞출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엄지성과 엄지성을 꾸짖는 안혁주가 만들 광주의 2024시즌에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우승

미국에 45-44 역전승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하한솔(성남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 박상원(대전광역시청)이 출전한 대표팀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월드컵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상욱(대전시청), 구본길,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가 오래 호흡을 맞추며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 등을 일궈낸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이후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김준호가 태극마크를 내려놓고 오상욱은 최근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하는 등의 변수 속에 기존 멤버인 구본길이 맹행으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선수들을 단체전에 기용하고 있다.

2023-2024시즌 첫 번째 월드컵인 지난해 11월 알제리 알제 대회 때 구본길, 오상욱, 박상원, 하한솔이 나서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지난달 조지아 트빌리시 월드컵엔 구본길, 박상원, 도경동, 성현모(국군체육부대)가 출전해 우승을 합작했다.

이번엔 성현모 대신 하한솔이 복귀한 가운데 또



왼쪽부터 박상원, 하한솔, 구본길, 도경동.

<대한펜싱협회 제공>

한 번 금메달을 수확해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16강전에서 조지아를 45-26으로 완파했고, 루마니아와의 8강전에선 45-44 신승을 거뒀다.

이어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45-42로 따돌린 한

국은 미국과의 결승전에서 끌려나다가 45-44 짜릿한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완성했다.

한편 같은 기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여자 사브르 월드컵엔 윤지수, 전하영(이상 서울시청), 전은혜(인천시 중구청), 최세민(전남도청)이 출전해 단체전 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세미놀 프로멤버 출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비공식 대회인 세미놀 프로멤버에 출전한다.

세미놀 프로멤버는 5일 하루에 끝나는 대회로 미국 플로리다주 주노비치의 세미놀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프로 선수들과 유명 인사들이 함께 경기하는 프로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즈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 세스 워 대표이사와의 한 조로 경기한다.

우즈가 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즈 외에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저스틴 토머스, 리키 파울러, 넬리 코다(이상 미국) 등

이 올해 대회에 나온다.

미국프로풋볼(NFL) 스타인 톰 브래디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롭 맨프레드 등도 출전한다.

우즈는 지난해 4월 마스터스 3라운드 도중 발 통증으로 기권했고, 이후 공식 대회에 나오지 않았다가 지난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했다. 그러나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도 2라운드 도중 감기 증세로 기권했다.

우즈는 올해도 4월 마스터스에는 출전할 것이 확실시되며 14일 개막하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도 나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사격 황제' 진중오, 권총 내려놓는다

2021년 도쿄올림픽 후 은퇴 결심

올림픽 사격 역사상 단일 종목 3회 연속 우승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운 '황제' 진중오(44)는 이제 권총을 내려놓고 사대(射臺)에서 물러난다.

진중오는 4일 서울 성동구 브리온컴퍼니 본사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은퇴를 결심했다. 후배를 위해 (권총을)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올림픽에서 경기하면서 더는 내가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뒤늦게 털어놓았다.

진중오는 올림픽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세

계선수권대회 금메달 4개를 획득한 한국 사격 영웅이다. 진중오가 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는 '신궁' 김수녕(양궁·금 4, 은 1, 동 1)과 함께 한국 선수의 하계 올림픽 개인 최다 금메달(4개)·메달(6개) 타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올림픽 사격 역사상 단일 종목에서 첫 3회 연속 금메달도 차지했다.

진중오는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도 출전했으나 시상대에 올라가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파묘, [위드키즈]브레다이버소: 셸럽 인 베이커리타운
2관	둔: 파트2
3관	소풍, [20주년특가]이프 오리, 시민덕희
4관	파묘
5관	윙카
6관	파묘, [20주년특가]이프 오리
9관	둔: 파트2, 윙카
7관	씨네카를 파묘
8관	씨네카를 파묘, 건국전쟁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유우재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즐거움
문화산책

파묘